

Software Modeling & Analysis

OSP Final

[Demonstration]

- 1 to 10 CPT Tool -

Team.#	6
과목명	소프트웨어 모델링 및 분석
담당교수	유준범 교수님
팀원	201211938 황준익
	201310350 손성호
	201414135 이광제
	201212088 이용주

Contents

Activity 1. Static Analysis 대응	21
Activity 2. OOPT Review	24
Activity 3. Summary	24

Activity 1. Static Analysis 대응

두 조에서 대표적인 PMD, Metrics나 FindBugs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공통적인 문제가 검출되었다.

두 조의 Static Analysis 보고에 대한 대응은 다음과 같다.

PMD: 중복된 코드가 많음, 일부 변수 형식의 불일치.

우선 명명 에러에 관한 점은 우리의 개발 프로세스상 설계에서 어긋나는 변수 명명은 없었고, 대부분 직관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_" 나 대문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지 않았다.

```
JLabel lblNewLabel_1 = new JLabel("Select");
lblNewLabel_1.setHorizontalAlignment(SwingConstants.CENTER);
lblNewLabel_1.setFont(new Font("", Font.BOLD, 20));
lblNewLabel_1.setForeground(Color.WHITE);
lblNewLabel_1.setOpaque(true);
lblNewLabel_1.setBackground(Icon.makeColorRGBA(64,64,64,255));
lblNewLabel_1.setBounds(319, 49, 105, 25);
this.add(lblNewLabel_1);
```

코드 중복은 GUI 컴포넌트 초기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중복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컴포넌트에 따라 필요한 옵션과 필요 없는 옵션이 다르며 이 초기화 부분을 함수로 묶어도 큰 효율 상승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Metrics: 일부 Package에 대한 Cyclomatic Complexity가 높다.

개발자가 재귀보다 루프나 스위치를 좋아하여 블록이 꽤 많았다. 하지만 삼항 연산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코드의 복잡도를 줄이고자 노력하였고 복잡도 수치가 치명적 이라고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무난히 현황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FindBugs: 1) 파일 입출력 관련 null Pointer 처리 확인 요망

2) Calculation과정에서 쓰이지 않는 지역변수

3) clone()사용에서의 경고

FindBugs에서 검출된 위험요소인 3가지 위험요소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
finally
{
    if(put != null) put.close();
}
finally
{
    if(input != null) input.close();
}
```

1. 파일 입출력에서 예외처리 후 Reader를 close하는 과정에서 null인 상태 확인을 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null Pointer Error => 확인 후 close

```
public ArrayList<CPT.Category> sort(){

    resultList.clear();
    resultList_filtered.cl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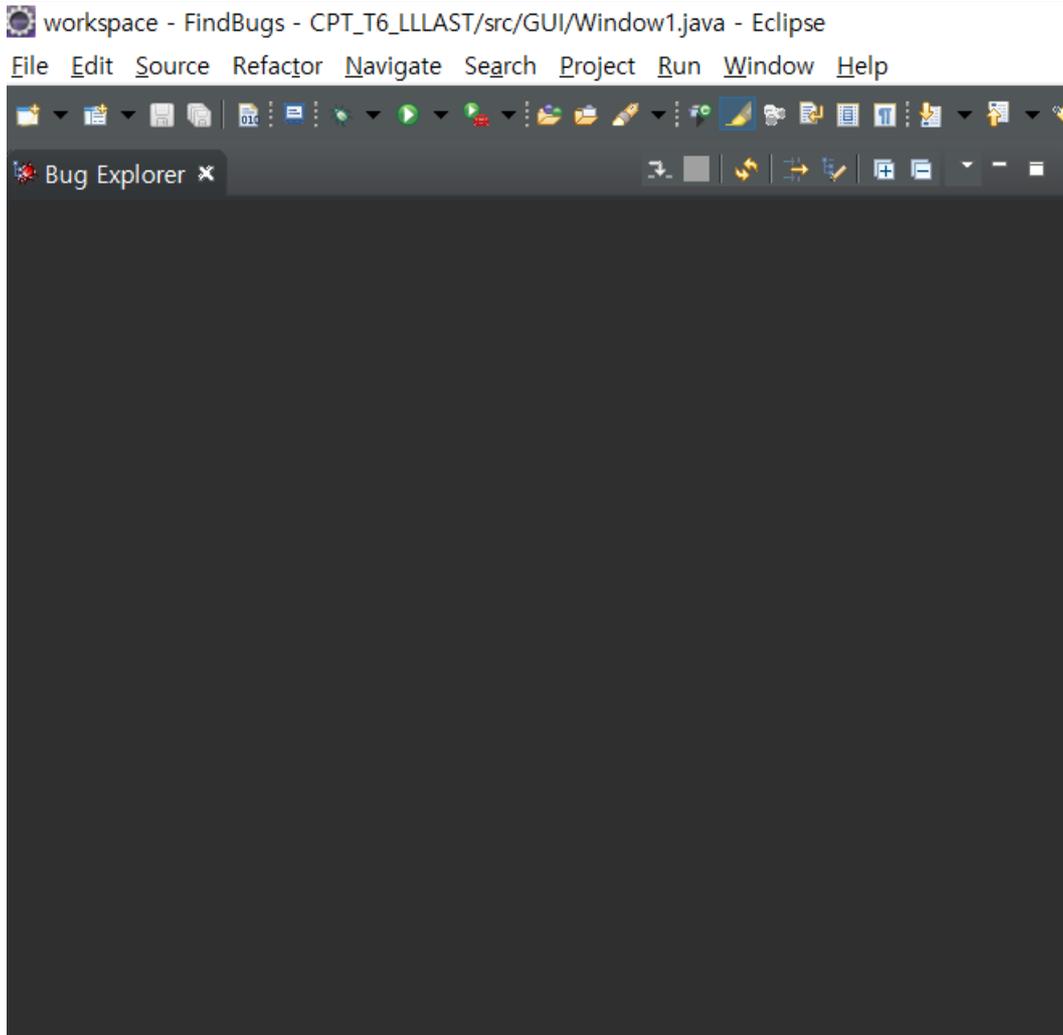
    ArrayList<CPT.Property> temporaryPropertyList = new ArrayList<CPT.Property>();
    ArrayList<CPT.Category> tempCategoryList = new ArrayList<CPT.Category>();
    //ArrayList<CPT.RepValue> tempRepvList = new ArrayList<CPT.RepValue>();
```

2. Calculation 과정 중에 사용하지 않는 tempRepvList 지역변수를 제거

```
public class Result implements Cloneable{

    @Override
    public Result clone()
    {
```

3. Result의 clone의 깊은 복사를 위한 인터페이스와 오버라이딩 메소드 구현



위험요인을 모두 수정하여 FindBugs 에서 위험요소가 검출되지 않는다.

Activity 2. OOPT Review

- Advantage

단계별 프로젝트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Waterfall 모델과 달리 한 번에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

현재 단계에서의 이슈에만 집중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의 이슈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 각 단계별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었다.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고정하지 않고 개발 과정을 진행해서 고정된 내용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고 자유로운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했다.

문서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구현 시 필요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초기 목적과 다르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계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초기에 계획한 대로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었다.

- Disadvantage

각 단계별로 문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기존의 문서를 지속적으로 수정해야 해서 문서 관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프로세스 단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해서 작년 혹은 재작년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가며 개발 단계를 진행해야 했다.

프로젝트가 큰 경우에는 개발 프로세스를 따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전체 프로세스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확장이 가능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

Activity 3. Summary

- 소감

이광제 : OOPT 를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점은, 문서가 귀찮아도 내가 생각했던 걸 저장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롭다는 것을 느꼈다.

손성호 : 문서를 단계별로 작성하니까, 나중에 모르는 부분이나 기존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문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각 단계별로 다음 단계에 대한 생각을 배제하고 프로세스를 진행하니까 좀 더 생각이 간결해지는 것 같았다.

황준익 : 문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프로세스 단계를 진행함에 따라 문서의 수정이 너무 많아서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 접어들면서부터 문서에 기록했던 내용들이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것을 보면서 단계별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됨을 느꼈다.

이용주 :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개발 과정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개발 프로세스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다.